

전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 '총력'

전라남도는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전 도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이뤄진다. 1차에선 모든 도민에게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이, 2차에선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다.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5개 시와 무안군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인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시군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21일부터 접수... 모든 도민 1인당 18만원부터 최대 45만원
28일부터 복지시설 등 정보 소외계층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신청·사용이 원칙이나, 기준일 이후 이사진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이사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시군의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희·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

부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전남도는 1개월 이내 전체 도민의 90%에게 민생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서비스'를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본격 추진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마을과 시설 등을 방문해 지원함으로써 민생쿠폰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 소비기간'으로 정하고, 쿠폰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홍보와 현장 중심 캠페인도 할 계획

이다. 민생쿠폰 전담 TF를 구성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수단 확보 ▲읍면동 민원대응 보조인력 확보, 콜센터 운영 ▲사용처 홍보·안내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민생쿠폰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 등 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영길 기자



탄소 중립 실천
화약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

광양경제자청, 금호석유화학 'CCUS 프로젝트' 준공식 참석 여수산단, 친환경 미래산업 기반 강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정장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 이하 광양경제자청)은 7월 16일(수) 전남 여수시 고무제1공장에서 개최된 금호석유화학 CCUS 프로젝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금호석유화학이 추진 중인 CCUS 프로젝트는 여수국가산단 내 대형 운실가스 배출사업장의 이산화탄소를

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은 축사를 통해 "광양만권이 탄소중립 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CCUS와 같은 미래 전략기술의 산업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준공을 계기로 친환경 소재·에너지 산업 유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자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역 내 탄소중립 기반을 더욱 확산시키고, 첨단소재 및 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적극 유치·지원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도, 청년창업농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 돕는다 8개소 선정해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전라남도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이력, 상품성 등을 평가해 8개소를 선정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도 계속해 도내 유망한 청년 농업인을 발굴해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고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농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방소멸과 초고령화된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바라는 청년 농업인이 창업 초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신안 김연옥 강강섬 대표는 "올해 첫 애플망고를 출하하게 됐는데 맞춤형 포장지가 없어 걱정이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생애 첫 상품을 출시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품을 개발했지만, 브랜드가 없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거나 무지상자에 상품을 출시해 홍보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청년농업인이 공동브랜드와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받아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팔 기자

광주 취업자 5000명 줄고, 전남은 3000명 늘어

6월 광주 취업자 수가 5000명 감소한 반면, 전남은 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광주시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6월 광주시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2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000명 증가했다. 6월 전남도 고용률은 66.5%로 전년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101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2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000명 증가했다. 6월 전남도 고용률은 66.5%로 전년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101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6000명, 4.5%), 광공업(1만 3000명, 13.2%),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2000명, 16.1%)에서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2만5000명, -11.5%), 건설업(-6000명, -7.4%), 도소매·숙박·음식점업(-6000명, -3.5%)에서 감소했다.



2025년 6월 광주광역시 고용동향.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71.2%로 0.7%포인트 상승했다. 6월 전남도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



2025년 6월 전라남도 고용동향.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71.2%로 0.7%포인트 상승했다. 6월 전남도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